

2016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추진요강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교육연구운동 개요

1 현장교육연구운동이란?

연구대회는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자료개발, 제도개선,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이다. 이러한 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1952년 10월 27일부터 28일 양일 간 충남 공주사범대학에서 개최한 전국교육연구대회가 효시이다. 현재 한국교총은 현장교육연구운동 사업으로 매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연간 1만 여 명의 유·초·중등교원과 전문직이 참여하고 있다.

①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2016년도로 60회를 맞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국내 최대·최고의 연구대회로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연대하여 주관하고 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는 매년 1~2월 중에,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3~4월 중에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계획서를 당해 연도 3~4월에 시·도 교총으로 제출하고, 12월~다음해 1월 중에 완성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전국대회에 출품된 연구보고서는 5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특히 다른 연구대회와 달리 예비심사단계에서 보고서의 표절·모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본심사에서 선정된 1등급 후보작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등급을 부여한다.

② 전국교육자료전

전국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이다. 교육자료전은 한국교총과 시·도 교육과학(정보)연구원 및 시·도교총이 연대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는 해당 시·도교총이 주관하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해당 시·도교육청(시·도교육과학(정보)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도 교육자료전은 매년 6~8월중에, 전국교육자료전은 10월초에 개최한다.

교육자료를 출품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 주최·주관처별로 연구·제작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자료전시회는 시·도 교육자료전의 경우 시·도별 사정에 따라 2~7일간, 전국교육자료전은 1~2주간 전시회를 갖고 있다.

③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1964년 최초 승인 당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계획과 실천, 지도,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기록·제작하는 “실천하는 연구대회”로 초등교육현장의 수업방법 개선과 질적 발전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현장의 실천적 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51회 대회까지 운영해 오면서 한 차례의 공정성, 신뢰성 시비 등의 문제없이 엄격하게 제규정을 준수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연구대회보다 질적·양적 수준면에서 우수하고 또한 일반화의 가치를 높게 추구하고 있다. 본 대회는 시·도 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로 매년 8~9월에 개최하고 있다.

2 연구 대주제

현장교육연구운동 연구 대주제는 1952년 『교육과정의 개조』로 설정한 이후, 2년 주기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연구 대주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현실 과제와 미래지향적 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에 의한 대주제 해설집을 간행하고 있다. 주제해설 내용은 주제에 대한 개념, 이론적 배경, 연구활동 내용, 연구방향, 구체적인 연구과제 등을 담아 제시하고 있다.

2015~2016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연구 대주제는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이다. 주제해설집은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3 출품 자격

①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별표와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단,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경우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전문직에 한함)

※ 본 연구대회 및 타 연구대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재(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출품할 수 없음.

②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연구보고서(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

③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도 교육연구원(연구정보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자료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전국교육자료전)

④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시·도 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므로 완성한 최종 연구보고서

2016년 제60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1 출품방법 및 일정

현장교육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먼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여야 하며, 동 대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1등급·2등급으로 입상하여야만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이 가능함(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1등급·2등급 입상작은 반드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범위는 입상제도와 연계하여 매년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①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 ①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 접수 : 2015. 3 ~ 4월
- ② 연구보고서 중간지도 및 연수 : 2015. 6 ~ 12월
- ③ 2차 연구보고서 접수 : 2016. 1 ~ 2월
- ④ 연구보고서 심사 및 시상 : 2016. 1 ~ 2월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시·도별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는 5~10p 정도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시·도 교총에 제출한다(세부사항은 소속 시·도 교총에 문의하기 바람).

※ 연구계획서 체제 예시 : <붙임 1> 참조

②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한국교총 주최)

- ① 연구보고서 접수(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장 추천) : 2016. 3월초
- ② 연구보고서 예비심사 : 3월중
- ③ 연구보고서 본심사 : 3월중
- ④ 연구보고서 발표심사 : 4월초
- ⑤ 연구보고서 최고상심사(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 4월중
- ⑥ 최종 심사결과 발표 : 4월말
- ⑦ 시상식 : 5월중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출품분과

교과분과영역 (10개 분과)	① 국어(한문포함) ② 도덕 ③ 사회 ④ 수학 ⑤ 과학 ⑥ 실과(기술·가정)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외국어
인성·창의분과영역 (4개 분과)	① 인성교육 ② 창의적체험활동 ③ 생활지도(상담,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등) ④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분과영역 (2개 분과)	① 교육행정(학교경영, 교직원생활, 교육정책개발연구, 평생교육·교육복지) ② 교육과정운영
유아·특수분과영역 (3개 분과)	① 유아교육 ② 특수교육(청각장애·시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 ③ 영재 및 학습부진아 교육

※ 출품편수에 따라 분과별 또는 영역별 통합심사 가능함

3 출품자 제출서류 등

- ① 출품신청서 1부 (양식 1)
- ② 출품서약서 1부 (양식 2)
- ③ 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양식 3)
- ④ 연구보고서 1부
- ⑤ 참가비(비회원일 경우) : 64,000원
- ⑥ 연구보고서 제출용 CD 1매(연구보고서 hwp 파일을 CD에 담아 제출)

4 시상내용

- ① 입상편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최종 출품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1 : 2 : 3등급이 1 : 2 : 3의 입상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 입상비율은 매년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② 1등급은 한국교총 푸른기장증 및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2·3등급은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한다.
- ③ 최고상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작품 2편에 대하여 대통령상(1편), 국무총리상(1편)을 수여한다.
※ 정부포상지침(안전행정부)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가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 또는 단체(팀) 명의로 상장이 발급됨.

5 연구보고서 심사절차

① 예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제출자격 확인 · 해당분과 적합 여부 확인 · 선행연구와의 표절 및 모작 여부 확인 · 현장연구보고서로서의 적합성 검토
② 예비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절 및 등외 판정(1차) · 판정 이의 제기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2차)
③ 본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심사 및 등급 결정 · 1등급 후보작 선정 · 분과별 최고상 후보작 선정
④ 발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보고서를 대상으로 공개 연구발표 · 1등급 입상작 최종 확정
⑤ 최고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최고상 후보작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 정밀심사 · 최고상 후보작에 대한 면접심사 · 현장실사를 통한 최고상 적격여부 확인 ·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선정

6 심사기준 및 배점

① 본심사 기준(100점 만점)

심사기준 및 배점	내 용
연구의 현장적용성(50점)	① 연구가 현장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② 연구내용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 ③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연구내용(25점)	① 연구내용을 일선교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② 연구내용의 분석력과 논리는 적절한가? ③ 연구내용이 현장교육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연구방법(15점)	① 연구방법이 연구내용에 적절한가? ② 연구의 도구 및 자료분석이 연구내용에 적합한가? ③ 연구의 체제 및 형식이 창의적인가?
연구주제의 접근성(10점)	연구주제 및 내용들이 한국교총이 설정한 연구주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② 발표심사 기준(10점 만점)

심사기준 및 배점	내 용
연구내용의 현장성(3점)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접근방법은 적절한가?
연구내용의 진실성(4점)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으며 연구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3점)	연구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

7 보고서 작성의 주안점

현장교육연구운동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교육운동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1) 어느 분과를 연구하든지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한국교총이 정한 당해 연도 연구 주제가 기본 배경이 되도록 함.
- (2) 연구주제는 연구의 핵심이 부각되도록 간결하게 압축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은 현장교육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함.
- (3) 연구범위를 가급적 문제해결 분야로 집약시켜 현장교육연구로서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함.
- (4) 연구보고서의 분량은 70면(A4 용지 양면 인쇄 - 부록포함) 내외로 하며, 부록은 연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분철하는 일이 없도록 함(스프링철 지양).
- (5) 연구보고서 본문(속표지 및 내지)에는 출판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 (6) 현장교육연구는 학술연구와 달리 현장교육 문제의 개선이나 발전에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논리전개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며, 문제해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함.
- (7) 연구는 기초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제선정,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연구의 목적, 문제의 제기 및 가설 설정, 연구자의 여건, 연구의 시기, 자료수집 가능성, 행·재정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반드시 중간 점검(지도)을 통해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진행함.
- (8) 선행연구 내용을 1행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잡다한 사항의 인용이나 참고문헌의 나열은 연구보고서를 오히려 조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9) 연구대상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가공하느냐 여부 및 연구의 핵심 주장부분을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의존하느냐 여부에 따라 양적연구 또는 질적연구를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해야함.

- (10) 연구의 내용에 적합한 연구분과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11)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연구보고서 작성 형태를 탈피하여 현장교육의 실재를 공개·보고하는 식의 연구보고서가 바람직함.

8 출품 및 추천시 유의사항

- (1) 2개 분과 동시 출품은 불허함.
- (2) 타 연구대회(전국교육자료전 포함) 중복 출품 가능함.
※ 단, 출품한 연구보고서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일을 기준으로 타 연구대회에서 기입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표절·모작 혹은 입상취소 처리함.
- (3) 직위 및 학교급별 상이자 간의 공동작은 출품할 수 없음.
- (4)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직무와 직결된 연구이어야 함(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감은 출품신청서에 해당 사항 기재).
- (5) 공동작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여야 함.
- (6)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할 경우 표절 처리함.
- (7) 제출서류 미비시 연구보고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8) 출품자가 잘못 지원한 분과 또는 분과가 모호한 경우, 한국교총이 출품자와 협의하여 분과를 조정할 수 있음.
- (9) 초등학교 1, 2학년의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통합교과는 교과분과영역의 관련 교과중 본인 연구와 연관있는 쪽으로 제출함.

9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9호, 2013. 5. 24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연구대회 네트워크 홈페이지(www.edunet4u.net)에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자 명세(성명, 소속, 출품주제)가 공시되고, 해당 입상작이 탑재되어 검색 및 열람이 자유롭게 되었음
⇒ 불공정 행위(표절·모작)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연구대회 출품 및 신청시 각별히 유의해야함

1 불공정 행위의 유형

- 표절과 모작(10.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 행위 또는 그 위탁
-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출품자나 관련 교원의 의무위반 행위
- 그 밖에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②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 입상 취소
 -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 교육부장관,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 시·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10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 (1)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 (인용표시에 관계없이)
- (2)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 (3)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4)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 (5)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 (6)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7) 연구자(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거나(석·박사 학위 논문 등) 입상한 논문을 부분 변용·기술한 경우
- (8)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 (9)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한 경우
- (10) 기 입상한 본인의 작품(입상등급에 관계없이)을 현격히 심화·발전시키지 않고 재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등외 및 표절처리함.

<붙임 1>

※ 예시

◆연구계획서의 체제(양적연구 유형)

제목 :

I. 연구 문제(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구체적 연구 문제와 가설
4. 용어의 정의

II. 이론적 배경과 관련 문헌 개관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설계
2. 연구의 절차와 실험설계
3. 연구 대상
4. 측정 도구
5. 자료 분석 및 통계적 방법
6.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제한점)
7. 연구의 예상되는 성과
8. 연구일정계획

참고 문헌

부록

<붙임 1-1>

※ 예시

◆연구계획서의 체제(질적연구 유형)

제목 :

I. 연구 문제(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제한점(필요한 경우)

II. 이론적 배경과 관련 문헌 개관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방법(질적연구 이유)
2. 연구대상(연구대상과의 관계 제시)
3. 표집(표본추출)
4. 자료수집(인터뷰, 녹음, 메모 등)
5. 자료 분석
6. 연구의 타당성 검증(연구자의 편견 배제)
7. 연구결과(앞서 논의된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관련한 연구의 공헌사항을 제시)

참고 문헌

부록

제60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신청서

1. 인적사항 및 출품현황

성명	한글	생년월일	※생년월일 숫자6자리 기재
	한자		
팀명	공동연구자만 작성하십시오(이름을 나열한 팀명은 제외함) 팀명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시에만 상장에 사용될 명칭입니다		
소속	근무처	※학교(기관)장 직인상의 학교명 기재	직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분과명			연구실행 학교·학년·반
연구주제	※ 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재		

2. 교직 및 연구경력

최초임용일	년 월	교직경력	년 월
연구경력	가. 연구학교 근무경력 : 나. 전국규모 각종대회 입상경력 : 다. 대학원 경력 : 라. 기타 연구경력 : ※ 연구(입상)내용 및 기관명 기재		

본인은 제60회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을 위해 위와 같이 출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연구자 (인)

3. 학교(기관)장 추천

위 사람은 본교(기관) 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서 상기 부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연구 실천하였기에 연구 과정을 확인하고, 출품자로서 적격이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학교(기관)장 (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일반 개인정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출품자 DB 등록,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 기타 연구대회 운영관련 업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한자), 소속(근무처), 직위, 전화번호(소속학교/자택/핸드폰), 이메일
- 선택항목 : 최초 임용일, 연구경력(연구학교 근무경력/전국규모 각종대회 입상경력/대학원 경력/기타 연구경력)

<보유·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2.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현장교육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3. 제3자 제공 동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제3자(교육부/시·도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부	입상자 전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주민번호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시·도교육청	해당 시도 입상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주민번호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제60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서약서

본인은 2016년 제60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품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입상작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본인은 연구대회네트워크 공개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현장교육발전을 위한 간행물, 정보·통신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2. 본 작품은 기존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대리연구에 의한 작품이 아니며, 본인 또는 타인의 선행연구물(학위취득실적 포함)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다른 연구대회에 입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 작품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일 현재 타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표절·모작 혹은 입상취소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연구보고서 심사과정 또는 심사 후에도 표절·모작·대리작·본인 작품 재제출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징계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및 기타 대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 위(급) :
성 명 : (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양식 3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주 제 :

분 과 :

소 속 :

직위·성명 :

※ 연구보고서를 요약할 때 유의할 사항

1. 기재 내용

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② 연구 대상 및 기간

③ 실행 내용

④ 검증 방법 및 결과

⑤ 결론 및 제언 등을 차례로 기술하되,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은 생략해도 무방함.

2. 반드시 A4 용지 한 면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할 것

3. 도표는 사용하지 말 것

(양식 4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현장교육연구보고서 겉표지

() 분과 (개인, 공동)

현장교육연구보고서

(제 목)

2016

소속·직위 및 성명

※ 유의사항

1. 부장교사도 교사로 표기함.

2.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되 의미의 혼동이 예상될 경우 ()안에 한자 표기도 가능함.

3. 반드시 출판분과를 명기하여야 함.

4. 속표지에는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2016년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

1 출품방법 및 일정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교원은 먼저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청 및 교육과학(정보)연구원 등에서 주최하는 시·도 단위 교육자료전에 출품하여야 하며, 시·도 단위 교육자료전에서 1등급으로 입상하면 전국단위 교육자료전에 출품이 가능함.

(단, 시·도 대회 1등급 입상작은 반드시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국교육자료전의 출품범위는 입상제도와 연계하여 매년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시·도 교육자료전(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청 및 교육과학(정보)연구원 주최)

- ① 교육자료 제작계획서 접수 및 심사 : 2015. 7 ~ 9월
- ② 교육자료 연수 및 중간지도 : 2015. 9 ~ 2016. 4월
- ③ 교육자료설명서 접수 : 2016. 4 ~ 5월
- ④ 교육자료 심사 및 전시 : 2016. 6 ~ 8월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시·도별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는 5~10p 정도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시·도 교총에 제출한다(세부 사항은 소속 시·도 교총에 문의하기 바람).

※ 연구계획서의 체제 예시 : <붙임 1> 참조

2 전국교육자료전(한국교총 주최)

- ① 교육자료설명서 접수(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장 추천) : 2016. 8월말 마감
- ② 교육자료설명서 예비심사 : 9월초
- ③ 교육자료설명서 심사 : 9월말
- ④ 교육자료 반입 : 10월중
- ⑤ 심사(자료 및 면접심사) : 10월중
- ⑥ 최고상심사(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 10월중
- ⑦ 최종 심사 결과 발표 : 10월중
- ⑧ 교육자료 전시 : 10월중 ~ 10월말
- ⑨ 시상식 : 10월말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출품분야

- | | | | |
|-----------------|----------------|--------|------|
| ① 국어(한문포함)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수학 |
| ⑤ 과학 | ⑥ 실과(기술·가정) | ⑦ 체육 | ⑧ 음악 |
| ⑨ 미술 | ⑩ 외국어 | ⑪ 특수교육 | |
| ⑫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 | ⑬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 ⑭ 일반자료 | |

3 출품자 제출서류 등

- ① 출품 서약서 1부 (양식 5)
- ② 출품신청서 1부 (양식 6)
- ③ 출품자료 1점
- ④ 교육자료설명서 8부
- ⑤ 교육자료요약서 1부(양식 7)
 - 인터넷에서 교육자료 요약서의 내용을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A4 1장(단면)분량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⑥ 게시용지 1점 (양식 8)
- ⑦ 설명서, 요약서의 내용이 수록된 CD-ROM(설명서, 요약서 hwp 파일)
- ⑧ CD-ROM 1점 (작품 주자료가 컴퓨터 웹자료를 기반으로 한 작품에 한하여 제출)
- ⑨ 참가비 : 70,000원 (비회원일 경우, 작품을 기준으로 공동작일 경우 비회원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4 시상내용

- ① 입상편수는 전국교육자료전 최종 출품작에 대하여 1 : 2 : 3등급이 1 : 1 : 1의 입상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 ※ 입상비율은 매년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② 1등급은 한국교총 푸른기장증 및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2·3등급은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한다.
- ③ 최고상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작품 2점에 대하여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1점)을 수여한다.
 - ※ 정부포상지침(안전행정부)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가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 또는 단체(팀) 명의로 상장이 발급됨.

5 심사절차

① 예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제출자격 확인 · 출품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출품분야 적합 여부 확인 · 선행 교육자료와의 표절 및 모작 여부 확인
↓	
② 예비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설명서 검토 · 예비심사에서 적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
↓	
③ 본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실물심사와 출품자 면접심사 · 분야별 1·2·3등급 입상작 선정 · 분야별 최고상 후보작 선정
↓	
④ 최고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최고상 후보작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정밀심사 · 최고상 후보작에 대한 면접심사 ·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선정

6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및 배점	내 용
자료의 적절성(20점)	①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가? ② 자료의 제작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③ 교수-학습활동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창의성(20점)	① 자료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② 본인이 직접 구상하여 제작한 작품인가?
완성도(20점)	① 자료가 기본 목적과 설계에 따라 제작되었는가? ② 자료 제작기술은 정밀한가? ③ 자료가 매체의 특성을 적절히 살리고 있는가? ④ 자료가 견고하고 사용이 편리한가? ⑤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 정리하였는가?
교육에의 기여도(20점)	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타당한가? ② 교육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③ 현장교육개선에 기여도가 높은가?
일반화 가능성(20점)	① 제작에 소요된 경비는 적절한가? ② 교육현장에 보급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는가? ③ 제작자료의 재료구입과 제작방법이 용이한가?

7 출품 및 추천시 유의사항

- ① 2개 분야 동시 출품은 불허함.
- ② 타 연구대회(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포함) 중복 출품 가능함.
※ 단, 출품한 작품이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일을 기준으로 타 연구대회에서 기입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표절·모작 혹은 입상취소 처리함.
- ③ 공동연구는 4인 이내로 제한함.
- ④ 학교급별간 공동연구를 허용함.
▷ 유치원교원과 초등교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의 공동연구를 허용함.
▷ 학교급별 상이자간의 공동작은 반드시 공동자료 활용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시 반영함.
※ 교육자료설명서에 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기토록 함.
- ⑤ 직위가 다른 교원과의 공동작은 출품할 수 없음.
- ⑥ 주자료, 보조자료 제한기준을 반드시 준수토록 함.
▷ 자료의 방만화 방지 및 특성화된 교육자료를 유도하며 자료의 일반화를 용이토록 하기 위해 교육자료의 주자료 이외의 보조자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함.
▷ 자료 수의 기준은 활용매체를 기준으로 함.
▷ 주자료는 복수매체의 활용이 가능하나 보조자료는 단일매체로 제한함.

교육자료전 교수매체 분류 기준	
· 실물자료	· 녹음자료(카세트, CD음악, MP3 등 디지털 사운드 포함)
· 모형자료	· 파일자료(패도, 사진, 카드, 그림, 스크랩북, 도표, 설명자료 등)
· 표본자료	· 멀티미디어 자료(CD-ROM 타이틀 기반)
· 조작자료(인형극, 그림극, 게임자료 등)	· WBI 자료
· TP/슬라이드 자료	· 모바일 자료(휴대폰, PDA, 태블릿PC 기반)
· 영상자료(VTR 테이프, DVD 등)	
· NIE자료	

- ※ 주자료, 보조자료 제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WBI 자료의 경우 심사 시 인터넷 기반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출품자 컴퓨터 안에서 구현되도록 제작

- ⑦ 제출서류 미비시 교육자료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⑧ 출품자가 잘못 지원한 분야 또는 분야가 모호한 경우, 한국교총이 출품자와 협의하여 분야를 조정할 수

있음.

9 저작권 확인

- ▷ 출판작 내에 타인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원제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작품설명서에 표기하고 사용권 확보 서류를 첨부함).
- ▷ 에듀넷, EBS 등에 탑재된 자료(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함.

10 교육자료설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전국교육자료전 예비심사는 실물자료 심사 전 「교육자료설명서」 심사를 통하여 선행교육자료와의 표절 및 모작 여부를 확인하므로, 「표절·모작 판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교육자료설명서」를 작성하기 바람.
- ▷ 규격은 A4 용지 30쪽 내외로 양면 작성하여 좌철함(스프링철 지양).
- ▷ 겉표지는 미끌거리는 코팅을 하지 말 것
- ▷ 공동작의 경우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반드시 명기할 것
- ▷ 교육자료설명서의 본문(속표지 및 내지)에는 출판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8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9호, 2013. 5. 24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연구대회 네트워크 홈페이지(www.edunet4u.net)에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자 명세(성명, 소속, 출품주제)가 공시되고, 해당 입상작이 탑재되어 검색 및 열람이 자유롭게 되었음 ⇨ 불공정 행위(표절·모작)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연구대회 출품 및 신청시 각별히 유의해야 함

(1) 불공정 행위의 유형

- 표절과 모작(9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 행위 또는 그 위탁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육자료전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출품자나 관련 교원의 의무위반 행위
- 그 밖에 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2)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ㄱ) 입상 취소

- (ㄴ)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 (ㄷ)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교육자료전 :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자료전 : 시·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
자 서면 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9 표절·모작 판단 기준 예시

- ① 타인의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의 자료 설명 내용과 현행 교육자료설명서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 거의 유사한 경우
- ② 기 입상된 본인작품을 상당부분이상 변화·심화시키지 않고 작품에 대한 설명이 거의 동일한 경우
- ③ 선행교육자료설명서와 내용은 다르나 동일한 틀을 사용하고, 내용전개·구성 등이 동일할 경우
- ④ 선행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종류가 동일하고, 자료의 제작방법 및 과정도 유사할 경우
- ⑤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종류는 다르나, 내용이 같을 경우
 - 선행교육자료설명서의 Web자료 등을 동일한 내용의 CD-ROM 타이틀로 변형하는 경우 등
- ⑥ 선행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자료의 종류를 1~2가지 부분적으로 첨가한 경우

10 교육자료 심사 및 전시시 유의 사항

- ① 출품된 교육자료는 각 분야별로 전시되며, 전시위치는 한국교총이 지정함.
- ② 출품자료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각 1m 이내로 제작하도록 함.
- ③ 전시장 전압은 220V이므로 작품이 110V이거나, 삼상전압일 경우에는 출품자가 강압기 등을 별도 준비하여야 함.
- ④ 작품과 관련한 모든 기자재는 출품자가 직접 준비해야 함(전선, 연결코드, 컴퓨터 등).
 - ※ 노트북 잠금장치도 출품자가 직접 준비하도록 함.
- ⑤ 전시대 전면에 ‘게시용지’(차트 게시)이외의 자료 부착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함.
- ⑥ 전시 기간 중 전시 자료는 항상 일반인이 관람·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전시하는 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은 금지하며, 전시 컴퓨터 구동 방법은 A4용지에 간단하게 기록하여 별도 부착할 것)
- ⑦ 출품된 자료는 전시기간 동안 반드시 전시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입상등급을 취소함.
 - ※ 출품자료는 반입 후에는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상식 종료 후 반출해야 함.
- ⑧ 출품자료 중 분실우려가 있는 고가의 귀중품은 한국교총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으나, 반출시에는 관람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조품 또는 사본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 ※ 노트북은 반출할 수 없으며, 노트북 반출시에는 반드시 Desktop으로 대체하여야 함
- ⑨ CD-ROM, 디스켓, OHP필름,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이 분실 여지가 높은 것은 전시기간 동안에 사본을

비치하여야 함.

- 10 무선 인터넷을 지원할 예정이나 전시장소의 변경이나 무선인터넷 연결의 문제발생을 대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자료는 출품자 자신의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11 교육자료설명서 본문(속표지 및 내지)에는 출품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 출품 서약서

본인은 2016년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에 참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품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입상작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본인은 연구대회네트워크 공개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현장교육발전을 위한 간행물, 정보·통신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 함에 동의합니다.
2. 출품작품이 특허신청 중이거나 특허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더라도 이는 작품의 무단사용이나 계약되지 않은 업자에 의한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본인은 연구대회네트워크 공개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현장교육발전을 위한 간행물, 정보·통신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3. 본 작품은 기존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대리연구에 의한 작품이 아니며, 본인 또는 타인의 선행연구물(학위취득실적 포함)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며, 현재 까지 다른 연구대회에 입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4. 본 작품이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일 현재 타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표절·모작 혹은 입상취소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교육자료 심사과정 또는 심사 후에도 표절·모작·대리작·본인 작품 재제출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징계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및 기타 대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 위(급) :

성 명 : (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신청서

1. 인적사항 및 출품현황

성명	한글		생년월일	※생년월일 숫자6자리 기재
	한자			
팀명	공동연구자만 작성하십시오(이름을 나열한 팀명은 제외함) 팀명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시에만 상장에 사용될 명칭입니다			
소속	근무처	※학교(기관)장 직인상의 학교명 기재	직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근무처() - 자택() - 핸드폰() - e-mail :
분야			적용교과 및 단원(교재)	
연구주제		※ 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재		
제작비		제작기간		
		자료크기	가로:	세로: 높이:
자료목록		※ 출품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목록을 기재 (주자료, 보조자료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기)		

2. 교직 및 연구경력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교직경력	년 월
연구경력	가. 연구학교 근무경력 : 나. 전국규모 각종대회 입상경력 : 다. 대학원 경력 : 라. 기타 연구경력 : ※ 연구(입상)내용 및 기관명 기재		

본인은 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을 위해 위와 같이 출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연구자 (인)

3. 학교(기관)장 추천

위 사람은 본교(기관) 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서 상기 부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연구 실천하였 기에 연구 과정을 확인하고, 출품자로서 적격이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학교(기관)장 (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일반 개인정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교육자료전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출품자 DB 등록,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 기타 연구대회 운영관련 업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한자), 소속(근무처), 직위, 전화번호(소속학교/자택/핸드폰), 이메일
- 선택항목 : 최초 임용일, 연구경력(연구학교 근무경력/전국규모 각종대회 입상경력/대학원 경력/기타 연구경력)

<보유·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2.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전국교육자료전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3. 제3자 제공 동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제3자(교육부/시·도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부	입상자 전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주민번호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시·도교육청	해당 시도 입상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주민번호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양식 7 : 전국교육자료전)

교육자료 요약서

[제 목]

소속·직위, 성명

교육자료 전면 사진

- 1. 제작목적
- 2. 적용대상 및 교과
- 3. 자료의 구성내용

구 분	주 자 료	보 조 자 료
자 료 명		
수 량		

- 4. 자료의 사용방법 및 교육적 효과

자료의 사용방법	교육적 효과

(양식 8 : 전국교육자료전)

게시용지 작성요령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



자료명 :
소속/직위/성명

- 1. 제작동기 (또는 목적)

필요한 경우 사용 장면의 그림 또는 사진을
넣어도 무방함

- 2. 대상학년 및 교과
 - 가. 대상학년 : 예) 초등학교 5, 6학년
 - 나. 적용교과 : 예) 과학과
 - 다. 활용단원 : 예) 6-2-2-계절의 변화

- 3. 자료의 구성내용

구 분	주 자 료	보 조 자 료
자 료 명	고도 측정 조작자료	CD 자료
수 량	2개	1매

- 4. 자료의 사용방법 및 교육적 효과

자료의 사용방법	교육적 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5년 제52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1 출품방법 및 일정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본 대회가 시·도 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단위의 대회이므로 관심있는 초등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포함)의 경우 한국교총의 대회 일정에 맞게 최종 연구보고서를 출품하면 됨.

- | | |
|---------------------------------|-----------------------|
| ① 연구보고서 접수 : 2015. 8. 3 ~ 8. 21 | ② 예비심사 : 8. 24 ~ 9. 4 |
| ③ 본심사 : 9. 16(예정) | ④ 심사결과 발표 : 9. 23(예정)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출품부문

연구 부문	연구 내용
1.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p>창의적인 학교경영 또는 학급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천사례를 연구</p> <p>-학교경영 (예)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계획과 실천, 명품교육을 위한 우리학교 특색사업, 전교생 생활지도를 통한 착한 인재육성, 학교내 교원연수를 통한 수업개선실천 사례, 보직과 교과전담 교사 배치를 통한 우리학교 교육력 제고 사례 등)</p> <p>-학급경영 (예) 마음의 문을 여는 교실대화방, 함께 어우러지는 월별 학급경영 프로그램 제안 등)</p> <p>-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예) 방과후학교 운영프로그램, 온종일 돌봄교실, 원어민 영어, 놀이한자, 과학실험, 컴퓨터자격증, 로봇과학 등)</p>
2.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p>각 교과목의 창의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발 연구(예) 교과별 일반화가 가능한 창의적인 수업안 등 포함)</p>
3. 평가자료 개발연구	<p>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정평가 중심의 평가자료 개발연구(예) 현장에서 수시로 개발 적용한 교과별 과정평가 자료, 관찰평가, 서술형평가 등) 또는 교과별 일반화 가능한 수준별 교수·학습 관련 학습지 자료</p>
4.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	<p>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활동자료</p> <p>-인성교육 (예) 바르고 정직한 인재육성, 공동의 목표와 나의 역할 찾기, 옳음과 그름을 알아보는 토론수업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중심수업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연구</p> <p>-창의적체험활동 (예)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자료로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개발한 활동자료)</p>

3 심사 절차

예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자격 확인 · 해당부문 적합여부 확인 · 선행연구와의 표절 및 모작 여부 확인
▽	
예비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절 및 등외 판정
▽	
본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심사 및 등급 결정

4 심사 기준 및 배점

부문	심사 기준	배점	총점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① 학교·학급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주제·계획 수립 ② 학교·학급경영 방법의 적절성 ③ 학교·학급경영을 위한 창의적 실천(참신성) ④ 현장 실천 활용도(현장 적용성)	30 20 30 20	100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① 교육과정의 심화도 ② 교수·학습에의 활용 등 실제적 기여 ③ 창의적 개발성(참신성) ④ 자료개발 방법의 적절성	30 30 20 20	100
평가자료 개발연구	① 교수·학습에의 활용도(현장 적용성) ② 평가자료 내용의 심화도 및 창의성 ③ 평가기준의 타당성(수준별, 수행평가 등) ④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의 기여도	30 30 20 20	100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	① 주제 선정의 적절성 ② 활동시간의 현장활용도(실제적 기여도) ③ 연구내용의 참신성 ④ 개발 자료의 적용성(적용 학년의 범위)	30 30 20 20	100

5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9호, 2013. 5. 24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연구대회 네트워크 홈페이지(www.edunet4u.net)에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자 명세(성명, 소속, 출품주제)가 공시되고, 해당 입상작이 탑재되어 검색 및 열람이 자유롭게 되었음 ⇨ 불공정 행위(표절·모작)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연구대회 출품 및 신청시 각별히 유의해야함

가. 불공정 행위의 유형

- 표절과 모작(6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행위 또는 그 위탁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출품자나 관련 교원의 의무위반 행위
- 그 밖에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1) 입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 교육부장관)에게 입상취소자 서면 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6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예시)

- 가.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 나.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 다.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라.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 마.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 바.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 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사.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7 표절 및 등외작 처리

- 가. 기 입상한 본인의 작품(입상등급에 관계없이)을 현격히 심화·변형·발전시키지 않고 재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등외 및 표절 처리함.
- 나. 표절 및 등외 판정을 받은 작품은 등급을 부여치 않음.
- 다. 등급 부여 후에도 표절로 발견된 작품은 등급을 취소하고, 이 사항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 라. 표절로 판정된 연구자는 표절판정일(등급 부여자의 경우 입상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의 참여를 제한함.
- 마.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한 경우

8 시상 내용

1. 입상 편수 : 출품작의 20%
2. 시상내역

등 급	구 분	시 상 내 용
1등급	본회표창	한국교총 회장상
	정부표창	교육부장관상
2등급	본회표창	한국교총 회장상
3등급	본회표창	한국교총 회장상

1등급 : 2등급 : 3등급 = 1 : 2 : 3의 비율로 함.

9 주요 행정사항

1. 연구대회 비회원 참여 허용에 따른 전국대회 참가비 납부 안내

- 참가비 금액 : 64,000원/연구보고서 1편당
- 참가비 납부방법 : 본회 계좌(농협 368-17-000795, 예금주 : 한국교총)로 입금함.
- 참가비 납부 관련 유의사항 : 납부한 참가비는 출품포기, 표절, 등외로 인한 등급 미부여 등의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도 환불하지 아니함.

2. 연구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 (1) 창의적인 학교경영 또는 학급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참신한 주제의 아이디어를 한 가지 이상 선정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적용한 학교경영 또는 학급경영 연구 결과를 작성, 제출할 것
 - (2) 연구물은 반드시 ‘한글파일’의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용지로 출력된 원본 1부를 단면 (양면 인쇄가 아님) 좌철·제본하여 제출함. 또한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CD-ROM에 담아 함께 제출할 것
 - (3) 연구물의 분량은 반드시 60쪽 이내일 것(단, 주제별 지도, 운영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실적물이 있으면 원본 뒤에 합본하여 부록으로 첨부하되 30쪽 이내일 것).
 - (4) 상기 연구 부문의 주제가 ‘학교경영’에 관한 것이면 관리직(교장, 교감)의 연구·출품이 가능함.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에 관한 것은 관리직 및 교사 모두 연구·출품이 가능함.
- ※ ‘학교경영’ 주제 중에서 교사의 수업·연구 지원 및 장학컨설팅 관련한 연구 등은 수석교사의 출품이 가능함.

나.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

- (1) 한 학년, 한 교과를 선택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예 5학년 1학기 수학과)을 창의성 있게 작성할 것
- (2) 수업연구안(세안)을 5차시분 이상이 되도록 작성할 것
- (3) 연구물은 반드시 ‘한글파일’의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용지로 출력된 원본 1부를 단면 (양면 인쇄가 아님) 좌철·제본하여 제출함. 또한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CD-ROM에 담아 함께 제출할 것
- (4) 연구물의 분량은 반드시 60쪽 이내일 것(별도의 부록은 불허함)

다. 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

- (1) 한 학년, 한 교과를 선택하여 평가자료(학습지, 수행평가 등)를 개발·작성할 것
- (2) 주당 수업 시간수를 고려하여 작성 분량은 12차시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매 차시당 다양한 평가자료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예) 기본·보충·심화학습지 등 수준별 학습지 및 창의력 학습지

예) ‘수행평가 내용 및 기준안(평가척도)’ 1매, ‘수행평가지(수행평가 문제)’ 1매를 기본형태로 하는 수행평가자료

예) 그 외의 연구자가 개발한 다양한 방법의 평가자료

(4) 연구물은 반드시 ‘한글파일’의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용지로 출력된 원본 1부를 단면 (양면 인쇄가 아님) 좌철·제본하여 제출함. 또한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CD-ROM에 담아 함께 제출할 것

(5) 연구물의 분량은 반드시 60쪽 이내일 것(별도의 부록은 불허함)

라. 인성교육 및 창의활동자료 개발연구 부문

(1) 「인성교육」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지도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되, 이론보다는 실천 중심 자료로 작성할 것

(2) 현장 활용도가 높은 수업자료를 개발할 것

(3) 자료 작성시 학년 구분은 각 학년별(1~6학년) 또는 저(1, 2학년)·중(3, 4학년)·고(5, 6학년)학년 등으로 구분·작성할 것

(4) 연구물은 반드시 ‘한글파일’의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용지로 출력된 원본 1부를 단면 (양면 인쇄가 아님) 좌철·제본하여 제출함. 또한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CD-ROM에 담아 함께 제출할 것

(5) 연구물의 분량은 반드시 60쪽 이내일 것(별도의 부록은 불허함)

※ 각 출품부문의 연구대상 기간은 2014학년도 1학기, 2학기 또는 1~2학기 및 2015학년도 1학기를 선택할 수 있음

3. 제출 구비서류

가. 비회원 ‘참가비 납부 영수증’(교총회원이 아닌 경우)

나. ‘본인연구확인 및 출품신청서’ 1매 - <붙임>

다. 제본된 ‘연구보고서’ 1부

라. ‘연구보고서 수록 CD’ 1장

10 기타

가. 1인 1개 부문만 출품 가능함.

나. 타 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포함) 중복 출품 가능함.

※ 단, 본 연구대회에 출품한 연구보고서가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입상일을 기준으로 타 연구대회에서 기입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표절·모작 혹은 입상취소 처리함.

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직무와 관련된 연구이어야 함.

-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부문은 “학교경영”에 관한 연구는 교장, 교감이 출품 가능하며, “학교경영” 중에서 교사의 수업·연구 지원 및 장학컨설팅 관련한 연구 등은 수석교사의 출품이 가능함. 또한, “학급경영”에 관한 연구는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교사만이 출품할 수 있음.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부문 외의 3개 부문은 교사,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모두 출품할 수 있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가 출품할 경우, ‘본인연구확인 및 출품신청서’에 소속 광역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연구원, 교육원 등의 기관장 확인 및 직인을 받아 출품할수 있음.

-연구대상 기간은 2014학년도 1학기, 2학기 또는 1~2학기 및 2015학년도 1학기를 선택할 수 있음.

라. 연구보고서 작성은 ‘한글2004’ 이상 버전을 권장하고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11 포인트로 함.

마. 연구보고서 본문(속표지 및 내지)에는 소속 및 직위,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바. 연구물의 속표지, 목차, 대제목이 들어간 간지는 규정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사. 연구대회 출품 중 소속 및 직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계획은 한국교육신문(www.hangyo.com),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pport.kfta.or.kr)에 공고할 예정임.

자.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반환치 않음.

차. 제출서류 미비시 연구보고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음.

제52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출품신청서

1. 인적사항 및 출품현황

성명	한글		생년월일	※생년월일 숫자6자리 기재
	한자			
소속	근무처	※학교(기관)장 직인상의 학교명 기재	직위	
	주소			
연구부문			연락처 (전화번호)	근무처() - 자택() - 핸드폰() - e-mail :
연구주제	※ 연구물의 주제명과 해당 교과 및 학년을 반드시 기재			

2. 서약

가. 연구대회 심사 결과가 표절·표절·대리작·본인연구물 재제출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금후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참여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이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본인의 연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물 및 정보·통신 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다. 기타 대회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연구자 (인)

3. 본인 연구 확인

위 사람은 본교(기관) 재직 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이며 O학년 O반 담임(OO과 교과 전담) 교사(교장,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로서, 상기 부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연구 실천하였기에 연구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제52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출품작품으로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학교(기관)장 (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일반 개인정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출품자 DB 등록,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 기타 연구대회 운영관련 업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한자), 소속(근무처), 직위, 전화번호(소속학교/자택/핸드폰), 이메일
- 선택항목 : 최초 입상일, 연구경력(연구학교 근무경력/전국규모 각종대회 입상경력/대학원 경력/기타 연구경력)

<보유·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2.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3. 제3자 제공 동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제3자(교육부/시·도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부	입상자 전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주민번호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시·도교육청	해당 시도 입상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주민번호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 아니오 ☐

2015~2016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주제 해설

“수신(修身)”으로서의 연구

—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 —

최의창(서울대학교 교수)

I. 대학(大學)의 지혜

고등학교 시절 한문교과서에 적혀있던 구절이 하나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 <대학>에 나오는 구문이다. 삼강령이라 불리는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일련의 순서에 맞춰 기술한 것이다. <대학(大學)>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성백효, 2010).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하는 데에 있다. ... 예로부터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그 집안부터 먼저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닦고, 자신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아는 것을 극진히 해야 할 것이니, 아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 있다.

요는 하늘에서 명한 도를 분명하게 널리 밝혀서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는 집안을 잘 돌보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몸을 바르게 닦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돈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을 대학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져주는 하나의 근본적 혜지(慧智)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육을 살어나게 하고 우리 학교를 변화시켜야 하는 한국교총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함에 있어서 한 가지 교훈을 준다. 즉, 학교교육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는 자신의 교육(수업)을 잘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은 자신이 하는 교육실천을 궁구하여 잘 알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궁구한다는 것은 바로 교사가 자신의 교육실천을 탐구하고 연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지식, 더 나은 앎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과 교육활동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이다. 교육개선과 학교개혁의 실현은, 결국, 교사연구가 첫걸음, 기본이라는 말이다.

한국교총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직을 연구전문직, 교사를 연구전문가로 확고히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5-2016 현장교육연구운동의 대주제도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설정하고, 연구하는 선생님을 제일 앞 선에 내세우면서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연구실천행위는 교육을 살어나게 하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대학의 지혜에 드러나 있듯이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일을 가능토록 하는 근본활동으로서의 “수신”(자신을 교육시키는 일, 修己)에 다름 아니다(신창호, 2004).

이 짧은 해설문은 이 점을 돌이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교사가 하는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해, 개선, 교육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한다. 그에 따라 교사의 연구는 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을 위한 연구, 교육이 되는 연구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연구에서 연구하는 교사와 연구의 대상이 갖는 관계에 따라 3, 2, 1인칭 연구라고 부르며, 현재 현장교육연구에서 절실한 것은 1인칭 교사연구임을 강조한다. 1인칭 교사연구는 자신의 교육활동을 연구하며 그 결과가 자기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결과를 낳는 연구라는 의미에서 자기교육연구라고 부르며 그 개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현장교육연구는 최종적으로 자기교육연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것은 또한 교사가 당연히 힘써야 하는 교육자로서의 “수신” 행위에 다름 아님을 확인한다.

II. 교사가 하는 연구

교사가 하는 연구란 무엇인가? 지난 30여 년간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교육적 지식의 주된 생산자는 교수가 아니라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인 힘을 얻어왔다. 교육적 지식, 특히 교사들에게 호응을 얻고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류의 교육적 지식은 대학 연구실에 자리를 틀고 있는 교수연구자가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제 가르치고 있는 교사연구자들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운동이 꾸준히 일어났다. 이는 교사연구운동(teacher research movement)이라고 불린다. 교사연구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또는 현장실천가연구(practitioner research)라고도 한다(강지영·소경희, 2011).

명칭이 무엇이던 간에, 핵심은 교육의 이해와 개선에 필요한 교육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 최적임자는 (대학교수라기보다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전문적 연구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해왔을 뿐이다. 교육의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논리, 방법 등이 현장실천가보다는 연구전문가에게 보다 더 유리한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적 지식의 생산과 창출 과정으로써 연구 행위라는 것이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서 규정되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생활 및 활용당사자들은 주관의 개입으로 올바른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여겨진 것이다(이용숙·김영천, 1998).

그런데, 해석적 패러다임, 비판적 패러다임,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적 패러다임 등 다양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대두와 교육연구에의 적용을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최적의 지식은 그 당사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당당히 인정받기 시작한다. 학교현장에서의 당사자는 바로 다름 아닌 교사 자신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적 지식의 제1창출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연구라는 독특한 탐구활동, 성찰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사가 하는 연구는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적, 인식론적 배경 위에 든든히 서 있다(최의창, 1998; Carr & Kemmis, 1986).

교사가 하는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행해진다. 그것은 이해, 개선, 교육이다. 교사의 교육연구는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교육 활동을 개선하고, 자신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행해진다. 예를 들면, 나는 체육교육을 공부하는데 학교체육에서 진행되는 기능중심 수업, 교사위주의 권위적 지도, 여학생 소외 등의 현상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으며,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얻기를 원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통합적 체육수업, 스포츠클럽활동, 체육진로체험 등 교과 및 교과외 활동들이 어떻게 나아져야 하는지 실제적 개선을 바라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체육활동에 관한 연구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나는 체육교사로서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육적 체험을 갖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첫 번째 목적은 “이해”다. 교사가 연구를 하는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어떠한 논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완전하게 개념적으

로 파악해내어 설명해내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론과 모형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체육수업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와 연습을 통하여 배구서브 기능을 익히게 된다. 이 때 체육교육연구자로서 나의 관심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운동기능의 학습은 어떤 인지적, 심동적 매커니즘으로써 가능하게 되는가? 나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구상해내고 그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맺어보고 확인해본다. 그리하여, 어떠한 학습 매커니즘을 통하여 운동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가를 명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에피스테메(*episteme*), 즉 개념적 지식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목적은 “개선”이다. 교사들은 순전한 이론적 호기심 충족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해를 넘어서 개선을 바라는 의도를 품고 연구를 수행한다. 이들은 교사의 수업활동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분석한 뒤 해결안을 마련해낸다. 예를 들어, 체육수업은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육수업이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수업행동이 효율적이어서 학생들의 수업목표 성취도가 높아야 한다. 체육교육 연구자로서 나는 연구대상들을 선정한 뒤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난 후, 비효율적 시범설명행동, 낮은 실제학습시간, 비효과적 관리활동 등 수업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찾아 가려낼 것이다. 그 요인들의 원인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알아낸 다음,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질적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방법을 일반화시켜 체육수업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적극 제안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방식으로 얻어낸 지식에 대해 테크네(*techne*), 즉 기능적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 번째 목적은 “교육”이다. 이것은 일반적 교육현상의 이해나 연구대상의 개선보다는, 연구하는 사람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현재 연구를 실행하는 당사자의 전문적 발전과 개인적 성숙(즉, 그 사람의 교육)을 도모한다. 연구가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교육되는 과정, 그것인 것이다. 체육교육을 연구하는 나는 일반적 체육현상이나 나 외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바로 체육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체육교육연구자로서 나는 나의 체육교육활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실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것을 왜 그런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해의 대상과 개선의 대상은 모두 나 자신과 나의 교육활동이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숙고를 거쳐 얻은 지식은 프론테시스(*phronesis*), 즉 실천적 지혜라고 말한다.

III. 3, 2, 1인칭 교사연구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며 행해지는 교사의 연구 각각을 “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을 위한 연구”, 그리고 “교육이 되는 연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최의창, 2004). 어떤 교육연구가 이해지향성을 띤다면, 즉 에피스테메를 추구하려 한다면, 그 연구는 “교육에 관한” 연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연구는 교과교육에 관한 기술적, 혹은 규범적 이론을 만들어낸다. “관한”이라는 수식어는 교육연구 관련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준다. 이 말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서로 분리된 두 객체라는 말이다. 연구자는 교육현상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거리를 유지한다. 자신의 주관이 연구대상의 올바른 이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그것에 “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현상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이 같은 완벽한 격리 혹은 분리로 인하여 교과교육현상을 있는 그대로, 연구자

의 주관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교과교육연구자는 교과교육의 현상 속에서 벗어나 되도록이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높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연구자와 교육연구의 대상은 서로 제삼자적 관계(第三者的 關係)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서로에게 “그것”의 관계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연구를 “3인칭 교사연구”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대다수의 이론적 연구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와는 다르게, 교육연구자와 그 연구대상이 서로 “너”의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교육을 위한” 연구가 바로 그런 경우다. 교육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즉 교육에 관한 테크네를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연구가 바로 이런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교육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고자 한다. 연구대상(학생, 교사, 환경 등)을 개선시키고 싶은 것이다. 연구자가 교육활동을 “위한” 마음으로 행해지는 연구가 바로 이런 관계를 유도한다. 연구자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문제점이 있음을 감지한다.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진다.

이런 교육개선 지향적 측은지심은 모든 교사연구자들의 내면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마음은 연구대상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유대감을 느끼지 않고는 발동하지 않는다. 연구대상을 “그것”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교육적 배려심은 생겨나지 않는다. 연구의 대상이 “나”와 개인적 연대감을 가지는 “너”의 관계로 인식되어야만 생겨난다. 이때, 교사연구자는 연구대상과의 거리를 좁힌다. 되도록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까이 갈 경우에만 바로 연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교육을 위한 연구는 “2인칭 교사연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1인칭 교사연구”가 떠오를 것이다. 가능하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서로에게 “나”의 관계가 되는 경우다. 2인칭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연구자와 아무리 가까워도 여전히 “남”이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바로,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일치하는 경우다. 내가 연구자고 동시에 내가 연구대상인 경우다. 교육연구자가 제삼자나 동료자 아니라, “자신”의 교육활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교과수업, 나의 생활지도, 나의 업무처리 등 내 교육적 활동의 모든 측면들을 스스로가 촛촛하고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 때, 교육연구자와 교육활동은 완전히 합치된 하나의 존재가 된다. 내가 나의 교육 실천을 성찰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수행자이며 대상자인 나에게 “교육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연구의 결과는 물론, 연구의 과정 자체가 내가 하는 교육활동을 이전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교육을 실천하는 나로 하여금 더 나은 교육자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의 과정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행해지는 교육연구는 “교육이 되는 연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연구를 수행하는 당사자를 교육자로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 이것이 바로 “교육이 된다”는 말의 의미다. 교사연구를 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연구자 본인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다 더 잘 하도록 (즉, 더 나은 교육자가 되게끔) 성장시켜준다. 연구자를 보다 더 나은 교육자로 성숙시켜주는 연구인 것이다.

IV. 자기교육연구

지나친 일반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그동안 진행된 교사의 교육연구는 3인칭 연구와 2인칭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대다수 교사의 현장연구는 “교육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연구”이거나 “교육을 개선하는 것

에 목을 맨 연구”였다. 1인칭 연구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세부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통상적 교육연구의 개념, 즉 교육연구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전문교육 연구자들의 상투적 사고방식이 교사들의 연구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 주된 이유다.

교육연구는 제삼자나 제이자에 관한 것이지, 제일자인 자기 자신은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팽배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 본인이 자신을 연구한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연구자의 주관성이 깊게 관여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자 자신의 이야기는 본인에 의해서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가 되려면 반드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연구에 있어서 이런 편견은 이제 점차 반박되거나 퇴출되고 있는 추세이다. 질적 교육연구가 일반화된 구미의 경우, 연구가 바로 교육이 되는 1인칭 교사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신판 “수업활동연구 핸드북(제4판)”(Richardson, 2001)에 실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영역별, 주제별, 교과별로 교육연구의 최근 동향을 집대성한 그 책에는 지난 이십여 년 간 교육학계에서 제안된 구성주의적 접근, 반성적 수업, 탐구중심 교사교육, 질적 연구, 실행연구 등 교육학의 새로운 중심 아이디어들이 연구와 실천(교육)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학 이론가나 전문연구자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실천가(주로 교사)가 교육적 지식의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동향이 교육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현장실천가 연구”를 탄생시켰다. 실행연구나 교사연구의 개념과 함께, 가장 최근에 교육연구 분야에서 각광을 받는 현장실천가 연구의 한 종류는 “자기교육연구”(自己教育研究)다.¹⁾ 자기교육연구가 바로 내가 앞에서 설명한 1인칭 교사연구, 교육이 되는 교육연구의 본보기다.

자기교육연구는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다 나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교육과 수업활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탐구활동이다. 자기의 (수업 포함) 교육활동을 체계적이고 반성적으로 탐구하면서, 자신의 교육활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통찰력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실천적 지식과 통찰력(*phronesis, practical wisdom*)이 내면에 쌓이면서 교사로서 전문능력이 성장하게 되며 교육실천능력이 보다 향상된다. 이것이 연구가 교육이 된다는 말의 의미다(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교육이 연구가 될 수도 있다. 실행연구에서처럼 내 수업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 실천 관찰, 반성, 수정하는 과정은 바로 연구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자기교육연구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가 교육연구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교사들이야말로 1인칭 교사연구에 최적격자임을 증명해준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체육수업활동을 연구하는 그 과정이 바로 나의 체육수업을 개선케 만드는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체육학 교수나 연구소의 박사연구인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내 연구와 내 교육에 있어서 그들은 영원히 2인칭(너) 혹은 3인칭(그)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 연구와 내 교육에 1인칭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바로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교육연구야말로 교육자로서 나 자신의 존재와 나의 학교교육활동에 교육이 되

1) 자기교육연구의 개념(그리고 방법론)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Self-Study”가 있다(Loughlan, Hamilton, LaBoskey & Russell, 2004). 최근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교육연구방법인 이 개념은 “자기연구”(이혁규 등, 2012) 또는 “셀프연구”(황혜영, 2013)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Self Study”가 교육연구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를 연구하되 심리학에서 말하는 한 개인의 일반적 자아가 아니라, 자신의 교육활동, 또는 교육하는 자아에 대한 탐구라는 제한적 의미가 반영되어야만 한다. “자기연구”의 자기에는 그런 의미가 반영되어있지 않다. “셀프연구”는 반역(半譯)으로, 구체적인 이해에 그리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이를 “자기교육연구”(自己教育研究)라고 옮기기를 제안한다. 이 번역은 교육하는 자아와 자신의 교육활동은 물론, 1인칭 교사연구에서 강조되는 “자기를 교육시키는 연구”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셀프스터디의 의미를 정도 이상으로 확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하 참조.

는 체계적 탐구활동이 될 수 있다.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체육, 미술 등 어떠한 교과영역(혹은 초등, 중등)에서 연구를 하던 간에, 교사연구자는 세 가지 방향에서 자신의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교사연구자가 실행하는 연구는 교육에 관한 것, 교육을 위한 것, 그리고 교육이 되는 것을 지향할 수 있다. 교사가 하는 연구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방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교사들이 하는 연구는 이론적 이해의 획득으로 손을 뻗는 3인칭 교사연구, 그리고 기능적 법칙의 발견을 쫓는 2인칭 교사연구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방향으로의 연구는, 한편으로는 교사들로 하여금 연구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와 현장에의 적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사의 연구자적 지위가 확고해지도록 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많은 경우, 승진을 위한 점수획득의 통로로서만 기능적이고 수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장교육연구의 가치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외면과 무관심이 쌓여가고 있으며, 연구전문가로서 대학 연구자의 우월한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연구에서는 교육연구의 당사자이자 수혜자인 현장 교사들의 역할 회복이 필요하다. 교육연구의 주체는 현장에서 교과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사를 교육전문가이면서도 연구전문가인 존재로 우뚝 서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교과지식의 창출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교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당사자가 연구활동의 (대상자나 제삼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서 얻는 교육적 지식이 자신의 교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적용되고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1인칭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교사의 연구는 교사에게 교육적 효과를 미쳐야만 한다. 스스로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스스로를 교사로서 커나가도록 돕는 결과를 낳아야만 한다. 자기교육연구는 교육이 되는 교사연구의 훌륭한 사례다.

연구유형	연구목적	연구대상과의 관계	연구지향	연구결과	연구방법론
3인칭 교사연구	교육의 이해	제삼자적 관계/그	교육에 관한 연구	이론적 지식 <i>episteme</i>	이론적 연구 개념적 연구
2인칭 교사연구	교육의 개선	제이자적 관계/너	교육을 위한 연구	기능적 법칙 <i>techné</i>	실험연구 상관관계연구
1인칭 교사연구	자신의 교육	당사자적 관계/나	교육이 되는 연구	실천적 지혜 <i>phronesis</i>	실행연구 자기교육연구

V. “수신”으로서의 현장교육연구

동양적 의미에서 본 수신(修身)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만드는 노력”을 말한다. 이것은 “교육”이란 일반적인 활동을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표현이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 그 사람 전체를 온전히 만드는 노력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알려준 바,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성의정심”(誠意正心)은 아는 것을 극진히 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기반으로 한다. 격물치지가 성의정심으로 이어질 때, 수신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온전함을 갖춘 이후에, 사회적 차원의 온전함을 위하여 제가, 치국, 평천하의 시도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신창호, 2001).

서두에서도 밝혔듯, 현장교사들이 하는 격물치지의 노력이 바로 교사가 하는 교육연구다. 그 중에서도 교육이 되는 연구다. 자신의 교육활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를 보다 더 나은 교육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마음이 가다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교육자로서의 뜻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온전한 교육자로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과정이 바로 자기 자신의 교육활동을 성찰하고 탐구함으로써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교육이 연구가 되며 연구가 교육이 되는, “교연일체(教研一體)” 또는 “연교일치”(研教一致)의 상황이 성취된다. 그리되면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변화됨을 통해 맞이할 경사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교사에 의한 교육연구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제 교사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사에게는 더욱 핵심부분이 되었다(Loughran, 2010). 대학교수에 의한 교육연구를 표준으로 삼고, 그 내용과 형식을 다소 축소한 형태로 그대로 따라하던 이전 패러다임도 많이 극복하는 도상에 있다. 연구대회에서의 포상이 주된 목적이 되었던 과거의 현장연구과는 애초부터 출발과 과정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현장연구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교육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탐구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사들의 현장교육연구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현상을 세밀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데에 절대적 도움이 되는 교육적 지식을 제공한다. 단, 이것은 오로지 교사들이 몸소 수행한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수신”을 위한 밑바탕이 되어 교사를 교육자로서 교육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현장에서의 교육연구는 이제 교사의 일상이 되었다.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만 잘 해내면 끝이 아니다. 교사는 연구자다. 교사가 하는 연구는 그것을 실천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연구를 통해서 스스로가 교육되는 그러한 연구다. 교사의 연구는 연구이면서 동시에 교육이다. 이론적 개념과 기능적 법칙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과 함께, 실천적 지혜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연구다.

이제 한국교총에서 장려해온 현장교육연구는 이러한 성격의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한 연구가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이 되는 연구로의 발전을 꼭 이루어내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는 그 과정과 결과가 3인칭적이거나 2인칭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1인칭적 성격을 지닌 연구로 발돋움해야 한다. 다른 교사가 일하는 교육현장을 움직이는 변인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의도로 행해지는 연구들과 함께, 자신의 교육실천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나아지도록 만드는 연구, 그리하여 교육자로서 실천적 지혜를 본인의 힘으로 쌓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자기교육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대학>의 지혜가 가르쳐주듯, 수석교사로부터 일반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외없이 한결같이 교사연구로서 근본을 삼아야만 한다. 한국교육이 살아나고 우리 학교가 변화하는 힘은 바로 교사의 자발적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지혜를 발견해내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한국의 교사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²⁾

2) 본문에서는 드러내 강조하진 않았으나,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교사연구와 자기교육연구에 대하여 한 모든 언급은 그것이 교사 자신이 해야 하고, 1인칭이라 부를 수 있고, 또 자신의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혼자”하는 혹은 “혼자만”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연구도 함께 했을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다. 최근 유행하는 “교사학습공동체”는 바로 이 사실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함께 모여 배우는 과정에서 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연구”(inquiry, research)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이다. 그래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연구공동체와 동의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기교육연구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교육활동을 살살이 훑어보아야 하지만, 혈혈단신 외로운 독수리가 되어서는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그것은 동료교사들의 협조로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생산적이며 교육적이다(McLaughlin & Talbert, 2006).

사물의 이치가 궁구된 뒤에야 앞에 이르고, 앞에 이른 뒤에야 뜻이 정성스러워지고, 뜻이 정성스러워진 뒤에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자신의 몸이 닦아지고, 자신의 몸이 닦아진 뒤에야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난 뒤에야 천하가 화평해진다. 천자로부터 서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예외 없이 수신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참고문헌

- Carr, W., & Kemmis, S. (1986). *Becoming critical: Education, knowledge and action research*. Lewes: Falmer Press.
- Loughran, J. (2010). *What expert teachers do: Enhancing professional knowledge for classroom practice*. London: Routledge.
- Loughlan, J., Hamilton, M., LaBoskey, V., & Rusell, T. (2004).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Vols. I & II).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McLaughlin, M., & Talbert, J. (2006). *Building 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Professional strategies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Richardson, V. (2001).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4th ed.). New York: Macmillan.
- 강지영·소경희(2011). 국내 교육관련 실험연구 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197-224.
- 서경혜(2009). 교사전문성개발을 위한 대안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43-276.
- 신창호(2001). *대학의 교육론 산책*.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신창호(2004). *수기, 유가 교육철학의 핵심*. 서울: 원미사.
- 성백호(2010). *대학·중용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이용숙·김영천(편)(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혁규·심영택·김남수·이현명(2012). 교사의 자기연구(Self-Study) 필요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18(2), 5-43.
- 최의창(1998). 학교교육의 개선, 교사연구자, 그리고 현장개선연구. *교육과정연구*, 16(2), 373-399.
- 최의창(2004). 교과교육연구의 세 방향. *교육마당* 21, 6월, 38-42.
- 황혜영(2013). 한국 교사교육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셀프연구의 도입. *한국교원교육연구*, 30(1), 59-80.

현장교육연구운동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①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입상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입상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연구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규모 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 ① 연구실적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입 상 등 급	전국규모 연구대회	시·도규모 연구대회
1 등 급	1.50 점	1.00 점
2 등 급	1.25 점	0.75 점
3 등 급	1.00 점	0.50 점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9조(연구실적평정대상 연구대회)

- 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 연구대회는 연구대회관리규정 별표1과 같다.

[별표 1]

연번	대회명	개최조직
1	생략	생략
2	전국교육자료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	이하 생략	이하생략

■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부훈령 제9호)

-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연구대회는 동 규정을 적용받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개최 경과

회 수	기 간	개최장소	주 제
1	1952. 10. 27 ~ 10. 28	공 주	교육과정의 개조
2	1954. 10. 7 ~ 10. 9.	서 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3	1955. 10. 24 ~ 10. 26	서 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4	1958. 10. 28 ~ 10. 29	서 울	교육으로 도의사회 건설하자
5	1958. 10. 29 ~ 10. 31	서 울	교육으로 자립경제 수립하자
6	1962. 11. 5 ~ 11. 7	서 울	교육의 민중화, 교육의 과학화, 교육의 생활화
7	1963. 10. 23 ~ 10. 25	서 울	과잉한 학습인구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능력을 올릴 것인가.
8	1964. 10. 21 ~ 10. 23	서 울	교육의 질적향상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9	1965. 10. 15 ~ 10. 16	광 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교육실천
10	1966. 10. 17 ~ 10. 18	서 울	실천에 직결되는 교육
11	1967. 10. 18 ~ 10. 19	대 구	인간교육과 생산을 위한 학습지도의 개선과 효율화
12	1968. 10. 8 ~ 10. 9	서 울	효율적인 인간교육과 생산교육
13	1969. 11. 6 ~ 11. 7	전 주	학교교육에 있어서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구현하는 방안
14	1970. 11. 12 ~ 11. 13	서 울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
15	1971. 11. 1 ~ 11. 2	춘 천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
16	1972. 11. 29 ~ 11. 30	서 울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
17	1973. 10. 18 ~ 10. 19	청 주	민족주체성을 구현하는 교육
18	1974. 10. 17 ~ 10. 18	서 울	민족주체성을 구현하는 교육
19	1975. 10. 16 ~ 10. 17	부 산	인간성 확립을 위한 교육
20	1976. 10. 14 ~ 10. 15	서 울	인간성 확립을 위한 교육
21	1977. 10. 13 ~ 10. 14	대 전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
22	1978. 10. 27 ~ 10. 28	서 울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
23	1979. 10. 24 ~ 10. 25	진 주	교육과 발전
24	1980. 11. 6 ~ 11. 7	서 울	교육과 발전
25	1981. 11. 12 ~ 11. 13	수 원	참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혁신
26	1982. 11. 18 ~ 11. 19	서 울	참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혁신
27	1983. 11. 10 ~ 11. 11	광 주	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28	1984. 11. 9 ~ 11. 10	서 울	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29	1985. 11. 8	서 울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
30	1986. 11. 6 ~ 11. 7	울 산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
31	1987. 11. 5 ~ 11. 6	대 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32	1988. 11. 4	서 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33	1989. 11. 20	서 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34	1990. 11. 26	서 울	민주발전 촉진을 위한 교육
35	1991. 11. 25	서 울	민주발전 촉진을 위한 교육
36	1992. 11. 21	서 울	민주발전 촉진을 위한 교육
37	1993. 11. 22	서 울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구
38	1994. 11. 21	서 울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구
39	1995. 11. 20	서 울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학교현장의 개선
40	1996. 5. 3	서 울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학교현장의 개선
41	1997. 5. 9	서 울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추진
42	1998. 5. 8	인 천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추진
43	1999. 4. 30	청 주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44	2000. 4. 29	대 전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45	2001. 4. 28	대 구	교육의 본질회복으로 새천년의 기반을 구축하자
46	2002. 4. 27	전 주	교육의 본질회복으로 새천년의 기반을 구축하자
47	2003. 4. 26	서 울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
48	2004. 4. 24	광 주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
49	2005. 4. 30	수 원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50	2006. 4. 29	대 구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51	2007. 4. 28	천 안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52	2008. 4. 26	대 전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53	2009. 4. 25	서 울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54	2010. 4. 24	청 주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55	2011. 4. 9	광 주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현장교육이 희망입니다
56	2012. 4. 28	대 구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현장교육이 희망입니다
57	2013. 4. 20	대 전	살아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
58	2014. 4. 5	서 울	살아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

전국교육자료전 개최 경과

회 수	전 시 기 간	장 소	전시 자료
1	1970. 11. 9 ~ 11. 13(5일간)	건국대학교 낙원분교	89점
2	1971. 10. 19 ~ 10. 25(7일간)	교육회관(광화문 소재)	83점
3	1972. 11. 24 ~ 11. 30(7일간)	국립공보관	78점
4	1973. 9. 12 ~ 9. 19(8일간)	"	80점
5	1974. 11. 11 ~ 11. 16(6일간)	"	80점
6	1975. 11. 15 ~ 11. 21(7일간)	국립과학관	80점
7	1976. 11. 14 ~ 11. 21(8일간)	"	110점
8	1977. 11. 11 ~ 11. 18(8일간)	"	100점
9	1978. 11. 10 ~ 11. 17(8일간)	"	120점
10	1979. 12. 19 ~ 12. 22(4일간)	덕수국민학교	120점
11	1980. 12. 9 ~ 12. 13(5일간)	국립과학관	118점
12	1981. 12. 8 ~ 12. 13(6일간)	"	143점
13	1982. 12. 7 ~ 12. 12(6일간)	"	143점
14	1983. 12. 6 ~ 12. 11(6일간)	"	154점
15	1984. 12. 4 ~ 12. 10(7일간)	"	156점
16	1985. 12. 2 ~ 12. 8(7일간)	"	154점
17	1986. 12. 1 ~ 12. 7(7일간)	"	154점
18	1987. 11. 30 ~ 12. 6(7일간)	"	169점
19	1988. 11. 28 ~ 12. 4(7일간)	"	151점
20	1989. 11. 13 ~ 11. 19(7일간)	한국교총 특설전시장	166점
21	1990. 11. 19 ~ 11. 25(7일간)	"	170점
22	1991. 11. 18 ~ 11. 24(7일간)	"	168점
23	1992. 11. 16 ~ 11. 20(5일간)	"	185점
24	1993. 11. 15 ~ 11. 21(7일간)	"	180점
25	1994. 11. 14 ~ 11. 20(7일간)	"	186점
26	1995. 11. 13 ~ 11. 19(7일간)	"	193점
27	1996. 11. 4 ~ 11. 10(7일간)	"	209점
28	1997. 11. 3 ~ 11. 9(7일간)	"	216점
29	1998. 10. 19 ~ 10. 25(7일간)	"	226점
30	1999. 10. 11 ~ 10. 17(7일간)	"	226점
31	2000. 10. 9 ~ 10. 15(7일간)	"	228점
32	2001. 10. 8 ~ 10. 15(8일간)	"	230점
33	2002. 10. 7 ~ 10. 14(8일간)	"	229점
34	2003. 10.13 ~ 10. 19(7일간)	"	236점
35	2004. 10. 11 ~ 10. 17(7일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대전)	219점
36	2005. 10. 17 ~ 10. 23(7일간)	한국교총 특설전시장	208점
37	2006. 10. 16 ~ 10. 22(7일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대전)	200점
38	2007. 10. 29 ~ 11. 4(7일간)	"	196점
39	2008. 10. 19 ~ 10. 25(7일간)	한국교총 특별전시장	163점
40	2009. 10. 18 ~ 10. 24(7일간)	"	199점
41	2010. 10. 17 ~ 10. 23(7일간)	"	203점
42	2011. 10. 17 ~ 10. 22(7일간)	"	204점
43	2012. 10. 8 ~ 10. 12(7일간)	엑스포과학공원내 대전교통문화센터(대전)	162점
44	2013. 10. 8 ~ 10. 19(12일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대전)	207점
45	2014. 10. 7 ~ 10. 18(12일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대전)	206점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주관처 안내

구 분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주 관 처	전 화 번 호	주 관 처	전 화 번 호
전국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지원국	02-580-5663~4	좌 동	
시 · 도 대 회	서 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2-735-8916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연구부	02-311-1227
	부 산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1-467-3206	부산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	051-860-6183
	대 구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3-655-2680	대구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	053-606-6565
	인 천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32-876-0253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자료부	032-880-0737
	광 주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62-528-6457	좌 동	
	대 전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42-638-6168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지원부	042-865-6314
	울 산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2-267-2392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지원부	052-220-1653
	경 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31-269-2984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교육지원부	031-8012-0951
	강 원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33-254-2948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교육부	033-769-1070
	충 북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43-217-2853	좌 동	
	충 남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42-256-3671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	041-640-1604
	전 북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63-253-9601	좌 동	
	전 남	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62-524-1275	좌 동	
	경 북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3-813-2741	경북교육연구원 교육자료부	054-840-2202
	경 남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5-263-1842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	055-269-0742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 합회 사무국	064-758-6250	좌 동	
	세 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지원국	02-570-56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인재과	044-320-1182

한국교총 전자도서관 이용 안내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현장연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자도서관(온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 ‘전자도서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장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와 교육자료전 자료설명서,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 현장교육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lib.kfta.or.kr> 또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로그인 -> 전자도서관

열람가능 자료

-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 ◆ 전국교육자료전 자료설명서
- ◆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논문 다운로드 방법

- ◆ 파일 형태 : PDF 파일
- ※ 컴퓨터에 PDF 뷰어 프로그램(Acrobat Reader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검색 방법
 - 상단 메뉴 중 [검색] 또는 [기본검색] 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초등교육연구대회) 등급별 입상작에 대한 검색은 상단 메뉴 - [현장연구보고서] [교육자료설명서] [초등교육연구보고서] 를 이용하십시오.
 - 제목/저자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상세정보창의 [원문파일] 을 클릭하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회원 로그인 필요)

기본 검색 활용방법

- ◆ 키워드나 분과, 저자명 등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창입니다.
- 그러나 탑재된 모든 자료유형이 검색되므로 검색결과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검색목록 상단의 자료유형(아이콘)을 찾아 클릭하여 해당되는 자료유형만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